

진짜 위험한 것!

김강석 / SBS 보도국 차장

현 대인들은 실제로 근거 없거나 대수롭지 않은 것들을 크게 걱정하는 반면 막상 위험성이 큰 것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미국의 건강 전문가인 데이비드 로페이크와 조지 그레이는 <위험: 우리 생활환경에서 진짜 안전한 것은 무엇이며 진짜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저서에서 이런 문제를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우선 근거가 없거나 대수롭지 않은 우려로는 유방 확대술에 쓰이는 실리콘과 인공 조미료, 핵 방사능, 유방 X선 촬영, 농약 노출 식품 등을 들고 있다.

유방확대술에 쓰이는 실리콘의 경우 미국 의학연구소가 수술을 받은 수 천명의 여성들을 조사해 보았지만 실리콘이 다른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인공감미료가 오래 전부터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사람의 건강에 위험하다는 증거는 없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핵 방사능도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약한 종류의 발암물질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에서 살아남은 9만명을 60년 동안 추적한 결과 암이 발생한 환자 수는 원폭이 투하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500명 정도 많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유방X선 검사도 방사선은 아주 약해 일반인의 우려처럼 암발생 위험이 높지 않으며 농약 노출 식품 역시 대수롭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진짜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음과 같다.

햇빛 : 태양 자외선은 매년 갖가지 형태의 피부암을 일으키고 있다. 대부분의 피부암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치명적인 피부암인 흑색종은 미국에서 매년 7천 80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실내 공기오염 : 집안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실제 집안은 집밖보다 오염물질이 더 많다. 세제, 화장품, 양탄자 속의 화학물질, 페인트, 곰팡이, 먼지, 진드기, 애완동물 비듬 등이 당장 생각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다. 또 주택과 빌딩은 밀봉되어 있어 이런 공기오염물질이 축적되면서 천식, 빌딩증후군 같은 갖가지 질병을 일으킨다.

집 안에서의 사고 : 미국의 사망원인 중 집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사가 8위를 차지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대표적 원인으로 추락, 중독, 익사, 화재, 질식을 꼽을 수 있다.

의료사고 : 의학연구소는 미국에서만 의료사고로 매년 9만8천명이 죽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항생제 내성 : 항생제의 남용으로 웬만한 항생제에는 끄떡없는 이른바 '슈퍼 박테리아'가 양산되고 있다.

저자들이 밝힌 위의 내용이 물론 모두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것이어서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 많다. 특히 지난달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순간의 방심이 대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만큼 주변을 둘러보고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PPEK